



Page.1

**[특집]**  
**함께여서 행복했던**  
**우리,**  
**국제비서인의 밤**

Page.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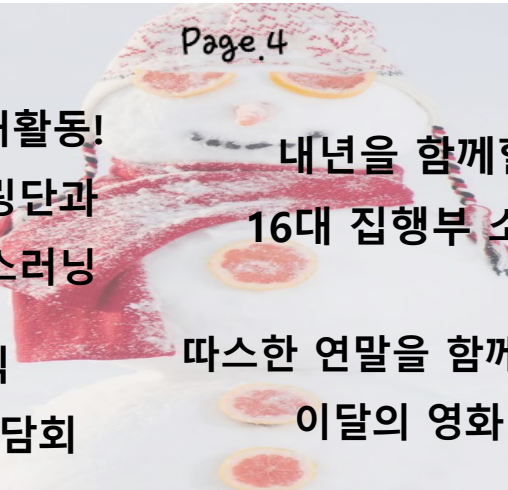
**10년 뒤 나를 위한 노력,**  
**진로설계의 날**  
  
**온 학년이 하나로,**  
**가을운동회**

Page.3

**추천하는 교내활동!**  
**전공 모니터링단과**  
**배움의 서비스러닝**  
  
**리베이직**  
**총학생회 간담회**

Page.4

**내년을 함께할**  
**16대 집행부 소개**  
  
**따스한 연말을 함께 보낼**  
**이달의 영화**



## 함께여서 행복했던 우리, 국제비서인의 밤



지난 12월 5일 목요일, 부산대 인근에 위치한 카페 ‘몽슈슈&크로체’에서 국제비서학과와 2019년을 마무리하는 종강총회와 국제비서인의 밤이 열렸다. 이번 국제비서인의 밤은 ‘12월의 어느 멋진 밤에’ 라는 부제 아래 국제비서학과 사진전 컨셉으로 진행되었다. 국제비서학과 학우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함께 2019년 행사들을 추억할 수 있는 사진들로 꾸며진 행사였다. 또한 학과장이신 김미영 교수님과, 송현정 교수님, 류영태 교수님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다.

2학기 종강총회는 각 학년 총대 인사, 2019년 예산안 보고, 동영상 시청, 15대 학생회 인사, 16대 학생회 투표로 진행되었다. 바쁜 한 해를 보냈던 국제비서학과 학우들의 활기차고 열정 넘치는 모습들과 15대 학생회의 재치 넘치는 인터뷰 영상을 보며 종강총회의 막을 올렸다. 15대 학생회 학생장 천하준(15) 학우는 “1년 동안 학우 여러분들과 예쁜 추억을 만들고 잊지 못 할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15대 학생회와 함께한 2019년이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며 내년에도 활발한 학과 행사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전했다.

그 후 2020년 차기 학생회 투표가 진행되었고 선거 결과에 따라 2020학년도 제 16대 명품국제비서학과 학생장은 최병현(15) 학우, 부학생장은 신수현(18) 학우가 당선되었다. 대의원 선거는 보궐선거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학생장으로 당선된 신수현 학우는 “저희를 믿고 뽑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2020년 학우 여러분들께 즐거운 학과 생활을 선물해드리겠다.” 라는 말을 전했다.

본격적인 국제비서인의 밤은 임하연(18) 학우와 양혁준(19) 학우의 사회를 시작으로 김미영 교수님께서 1년 동안 고생 많았던 국제비서 학우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며 케이크 커팅식과 함께 막이 올랐다. 우선 싱크로울 콘테스트 후보에 오른 성연수(17) 학우, 손제빈(19) 학우, 황서호(19) 학우의 자기소개와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다. 어린 시절 찍었던 사진을 그대로 재연하고 그 컨셉에 맞는 춤이나 재치 있는 개인기를 선보이며 학우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투표 결과 싱크로울 콘테스트 1등은 손제빈 학우가 차지하였으며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받았다. 손제빈 학우는 “상품권으로 언니와 함께 쇼핑을 가고 싶다며 투표해주셔서 감사하다.” 라는 귀여운 소감을 전했다.

그 후 학우들의 어린 시절 사진 맞추기, 제시하는 상황에 따라 가장 근사치의 숫자를 말하는 ‘이 구역의 짝신’ 게임, 전자음성이 들려주는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는 ‘음악의 신’ 게임, 학과 관련 OX퀴즈, 눈치게임, 구구단 등의 재미있는 순발력 게임들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상품으로는 문화상품권, 영화 티켓, 향수, 다이어리, 과자, 꿀, 수면양말 등의 다양한 상품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채로 뽑아갔기 때문에 더욱 유쾌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던 레크레이션이었다.

레크레이션이 끝나고 저녁식사를 하며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서로 담소도 나누며 각자 국제비서인의 밤을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마지막 단체사진을 찍으며 국제비서인의 밤은 마무리되었다.

2학기 종강총회와 국제비서인의 밤을 끝으로 2019년 국제비서학과는 아름답게 빛날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국제비서인의 밤에서 사회를 맡은 양혁준(19) 학우는 “국제비서인의 밤 행사 사회자를 맡게 되어 진행을 하면서 학과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같이 사회를 본 임하연 선배님, 15대 학생회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고 부족하고 서툴렀지만 학과 행사 사회자를 맡아서 영광이고 좋은 경험이었다.” 라고 말을 전했고 김유진(19) 학우는 “국제비서학과에서 Miss/Mr. 스마일 선발대회 다음으로 큰 행사인 국제비서인의 밤에 참여하게 되어서 국제비서인으로서 소속감이 들었고 선배님들, 동기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하며 친목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 라는 말을 전했다.

2019년, 12월의 어느 멋진 밤에 국제비서학과와 빛나는 마무리를 함께 해준 학우들과 1년 동안 힘 써준 제 15대 명품국제비서학과 학생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2019년 원하는 소망 모두 이루어서 행복한 2020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18 신승연, 19 김여정, 19 이채영 기자

10년 뒤 나를 위한 노력, 진로설계의 날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짓기 위한 2019년 후반기 행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중 진로설계의 날이 지난 11월 21일 목요일과 11월 22일 금요일 총 2일을 걸쳐 진행되었다. 진로설계의 날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학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행사이다.

첫 일정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09학번 김민준 선배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김민준 선배는 현재 부동산 관련 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계시며 어떤 직책과 업무를 맡고 있는지와, 업무에 있어 엑셀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 등 다양한 것을 알려주셨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면접 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었고 교내 취업지원센터에서 일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지원센터의 장점을 설명해 주셨다.

다음 일정으로는, 김수용 강사님과 고혜경 강사님의 인사와 함께 3학년 학우들의 모의 면접으로 이어졌다. 올해 진행된 모의 면접은 항공 승무원직 3팀, 비서직 3팀, 사무직 1팀 총 6팀으로 나뉘어 면접이 진행되었고 진행 도우미로 강예진(18) 학우, 김인희(18) 학우, 신수현(18) 학우가 수고해주었다. 먼저 항공 승무원직으로 시작하여 비서직, 사무직 순으로 모의 면접이 진행되었으며 면접 질문은 직무와 조별마다 모두 다르게 주어졌다. 모든 면접이 끝난 후 김수용 강사님은 항공 승무원직을, 고혜경 강사님은 비서직과 사무직을 담당으로 학우들에게 개별적으로 모의 면접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셨다.

다음은 시상으로 이어졌다. 수상은 직무별로 시상이 되어 총 3명의 학우가 수상하였는데, 항공 승무원직에서는 추나은(17) 학우가 수상하였다. 추나은(17) 학우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나 그만큼 더 큰 동기부여가 되어 남은 학교생활과 취업 준비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비서직에서는 박지빈(17) 학우가 수상하였다. 박지빈(17) 학우는 “3학년이 되면서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막막했는데 이번 진로설계의 날을 통해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과 자세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자신감을 얻어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사무직에서는 김혜주(17) 학우가 수상하였다. 김혜주(17) 학우는 “면접관들의 피드백을 통해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자신의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향후 변화해야 되는 태도, 자세, 이미지 등에 대한 조언을 듣는 시간도 가지게 되어 취업 준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음 날인 11월 22일 금요일에 13학번 정다예 선배의 특강이 이어졌다. 13학번 정다예 선배는 2017년 스포츠 기자로서, 이번에는 특히 우리 국제비서학과의 마케팅 관련 사무직을 꿈꾸는 학우들을 위해 방문해 주셨다. 정다예(13) 선배는 사회에서 경험하신 것 외에 스펙 준비 과정, 자신이 쌓은 노하우 전수를 통해 학우들의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학우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자유롭게 질문하여 학우들의 걱정을 한층 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7김예리, 18신수현, 19윤현정 기자

온 학년이 하나로, 가을운동회

지난 11월 7일 목요일 국제비서학과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 가을 운동회는 2019년 처음 시행된 행사이며, 김미영 교수님의 기획단을 향한 격려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가을 운동회는 B동 체육관에서 빨간 팀, 흰 팀, 파란 팀, 검은 팀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먼저, 1부 종목에서는 훌라후프를 이용한 게임과 제한시간을 두어 정해진 시간 내에 준비된 게임을 빠르게 끝내는 릴레이 게임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난 후 2부가 시작 되었다. 2부에서는 모든 팀이 참여하는 꼬리잡기와 경보 릴레이가 진행되었다. 이 게임을 끝으로 가을 운동회 기획단이 기획한 게임을 모두 끝마쳤다. 가을운동회의 마지막 순서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1등은 흰 팀이 차지하였고, 상품으로 푸드코트 상품권을 지급하며 가을운동회는 막을 내렸다.

가을 운동회를 기획한 기획단 최병현 학우(15)는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부담도 컸다. 그래서 가을 운동회 진행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당일이 되니 많은 학우들이 프로그램을 잘 참여해 주었다. 그래서 당시 학우들에게 정말 고마웠고, 서포터즈들과 함께 가을 운동회를 기획할 수 있어서 좋았다.” 라고 말했다. 최소원 학우(18)는 “처음 시행되는 학과 행사인 만큼 가을 운동회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에 걱정이 많았지만 서포터즈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잘 진행할 수 있었고, 많은 학우들이 즐겁게 참여해주어서 가을 운동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좋은 추억을 쌓은 것 같아 너무 뿌듯했다.” 라고 전했다. 강예진 학우(18)는 “올해 첫 가을 운동회를 시행하면서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1,2,3학년 학우들 모두가 많이 참여해주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어서 감사했다. 활동 후에도 여러 학우들이 찾아와 좋았다는 말을 해주어서 국제비서학과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준 것 같아 뿌듯했다.” 라고 전했으며, 마지막으로 김인희 학우(18)는 “머스트해브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의 두 배인 대규모의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이 매우 영광이었으며, 선, 후배는 물론이고 동기들과 화합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뜻 깊은 시간이었다. 학업에 지친 몸과 마음을 가을 운동회를 통해 회복할 수 있어서 잊지 못 할 행사로 남을 것 같다.” 라고 전했다. 그리고 가을 운동회에 참여한 김예빈 학우(19)는 “우리 학과 전 학년이 참여해서 한 첫 운동회였는데 알찬 프로그램으로 재미있었다. 또한, 동기와 선배님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가을 운동회를 한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승헌 학우(19)는 “가을 운동회를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국제비서학과 가을 운동회에 전 학년이 모두 참여해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가을 운동회를 통해 바쁜 일상을 보내는 모든 학우들에게 잠깐의 휴식시간을 주는 활동이었다. 모든 학우들에게 이러한 기회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주게끔 만들어주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가을 운동회 기획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17 최예인 18 강예진 19 안현경 기자



# 추천하는 교내활동! 전공 모니터링단과 배움의 서비스러닝

먼저 소개할 교내활동은 전공 모니터링으로, 전공별 소속 학생들로 구성된 ‘전공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수업 모니터링 결과물과 피드백을 통해 교수-학습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교내활동이다.

‘전공 모니터링단’은 총 8주차에 걸쳐 일정을 진행하며, 크게 3가지 활동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모니터링 활동은 심화형 수업계획서 평가로, 단과대학 별 전공수업계획서를 읽고 평가 도구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작성하는 활동이다. 2차 모니터링 활동은 인터뷰를 통한 전공모니터링으로, 제시된 샘플문항 중 인터뷰에 쓸 문항 10개(필수문항 7개, 선택문항 3개)를 직접 선택하여 전공수업을 듣는 학우 3명을 인터뷰하는 활동이다. 인터뷰 진행 시, 반드시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며 인터뷰 내용을 필수적으로 녹음하여 2차 활동보고서와 함께 녹음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3차 모니터링 활동은 수업 모니터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담당자가 지정한 전공 교과목(2개)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 전/후로 수업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직접 모니터링을 하면서 작성한 평가·분석 보고서와 장점 혹은 개선점을 쓴 종합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면 활동이 마무리된다.

‘전공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한 신수현(18)학우는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니라 평가단 입장으로 수업을 들어보니 다양한 관점으로 수업을 보게 되고 평소 지나쳤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어 좋은 경험을 했다.”라며 활동 소감을 전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서비스러닝’ 활동은 강의실에서 지식을 전수 받은 학생들이 이를 이해하고 응용하여 지역사회에 주체적으로 적용하며 학습 내용을 심화시키고, 전문성을 가지고 자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교과목과 지역 사회봉사를 통합시킨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이다.

참여대상은 글로벌 서비스러닝 교과목을 수강하는 재학생 중 신청자이며 활동 기간은 약 15주이다. 글로벌 서비스러닝 활동 30점 이상을 수행하여 사회봉사 1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진행절차는 글로벌서비스러닝 교과목 수강신청 후 1차시 수업시간에 글로벌 서비스러닝에 대한 안내를 받고, 교수님께 활동 참여 신청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 글로벌 서비스러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활동 진행 과정 안내를 듣고 대학생 자원봉사 워크숍에 참석하여 끝이 난 후 봉사내용을 활동 계획서에 작성하고 활동을 실시한다. 중간에 간담회를 진행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실시하여 성찰 에세이를 작성하고 글로벌 서비스러닝 활동 실적을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최종보고회 및 시상식을 하며 마무리한다. 이 활동의 봉사시간 총 30시간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10시간이 인정되며, 교과목 특성에 맞는 서비스러닝 활동을 15시간 이상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러닝 활동과 활동 소감 에세이 작성이 5시간 인정으로 총 3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는 것이다. 또 교과별 활동 간담회를 통해 담당 교수님과 학생들의 활동 성찰을 위해 학기 중 2차례의 간담회를 교수님 2만원, 학생 1만원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미영 교수님의 ‘고급비서실무론’의 과목으로 글로벌 서비스러닝에 참여한 이수연(18)학우는 ‘서비스러닝의 참된 목표를 알게 되었고 전공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할 때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나에게도 전공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내년에 서비스러닝에 참여할 마음이 있는 학우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 글로벌 서비스러닝에 참여한 강예진(18)학우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해서 나의 학습에서도 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국제비서학과 학우들에게 꼭 신청해보라 추천하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교내활동에 관심이 있는 국제비서학과 학우라면 전공 모니터링과 서비스러닝 활동을 계획하고 학우들이 직접 참여하여 뜻 깊고 보람찬 한 해를 보내기를 바란다.



17박혜주, 18김인희, 19김예진 기자



## 리베이직 총학생회 간담회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2019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우리 학교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학생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2019년 10월 2일 리베이직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권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개선하기 위해 총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기영(전 총장), 권오경(교학처장), 장병일(학생복지팀장), 이정민(학생복지팀), 강만수(총학생회장), 윤형준(총학생회부회장) 총 6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총학생회가 요구한 첫 번째 사항은 행정서비스 강화이다. 이에 대해 학생 관련 행정 담당자의 잦은 부서이동 금지와 부서명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학생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두 번째로는 휴게공간 확보이다. A동 국제협력팀 이전 자리를 학생 휴게실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학내 곳곳 부족한 휴게공간 설치를 요구하였다. 정기영 전 총장은 D동이나 강의실을 휴식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본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는 교내 마을버스 정류장 차양막 설치이다. 네 번째는 학생식당 개선에 관한 내용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아워홈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고 정기영 전 총장은 타 대학의 식당 운영사례 조사를 지시하였다. 마지막으로 G동 에스컬레이터 양방향 운행에 관한 내용으로는 G동을 찾는 목적에 따라 동선이 다르나 현재 한쪽만 운행하여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하여 학생복지팀에서 캠퍼스관리팀에 양방향 운행 검토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리베이직 총학생회 부회장 윤형준 학우는 “전 총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휴게실, G동 에스컬레이터 양방향 운행 등 학우분들께서 학교에 원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 총장님의 사퇴로 다음 총장님이 어떻게 선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학우분들께서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총학생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18 이지윤, 18 박윤지, 19 남예지 기자

## 내년을 함께 할 16대 집행부 소개

지난 12월 5일 목요일, 장전동 ‘몽슈슈&크로체’에서 종강총회, 국제비서인의 밤과 더불어 제 16대 명품 국제비서학과 학생회 선거가 진행되었다.

2020년 차기 학생회 투표에는 최병현(15)학우와 신수현(18)학우가 학생장과 부학생장으로 출마하였다. 투표결과는 총 78명의 학우 중 61명의 찬성표, 17명의 반대표로 집계되어 선거에 당선되었다.

대의원 선거는 보궐선거로 이루어질 예정임을 밝혔으며, 학생장으로 당선된 최병현(15)학우는 “올해 15대 학생회가 너무나 잘해준 만큼,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 격정이다.”라며, “한편으로는 믿고 뽑아주신 만큼 열심히 해서 모든 국제비서학우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부학생장 신수현(18)학우는 “저희를 믿고 학과를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15대 학생회가 잘 이끌어 온 학과에 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항상 학우들을 위해 노력하며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학과생활을 선물 해드리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선거가 끝난 후, 12월 11일 수요일, 16대 학생회에서는 학생회 구성원을 모집하는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를 뒤인 13일 금요일에 차기 학생회 구성원들에게 합격소식을 전하며 비로소 제 16대 명품국제비서학과 학생회가 완전체를 갖추게 되었다.

이번 학생회는 지난 학생회 구성조직과 달리, ‘총괄팀장’ 직책이 생겨 총 9명의 인원이 1년을 함께한다. 총괄팀장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으로, 학생회의 기틀이 조금 더 단단하게 잡힐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역할이다.

제 16대 명품국제비서학과 학생회는 학생장 최병현(15), 부학생장 신수현(18), 대의원 김선우(16), 총괄팀장 황성민(16), 기획팀장 김인희(18), 총무팀장 이수연(18), 정책팀장 양혁준(19), 홍보팀장 신은총(19), 선전복지팀장 김예진(19) 학우들로 구성되었다. 정책팀장 양혁준(19)학우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배워 나가고 성장하면서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홍보팀장 신은총(19)학우는 “국제비서학과를 대표하는 중요한 학생회 자리를 믿고 뽑아 주신 만큼 책임을 갖고 성실히 임할 것이며,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학생회 집부가 되겠다.”라고 앞으로 함께할 1년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선전복지팀장 김예진(19)학우는 “처음 해봐서 배울 점도 많고 노력도 많이 해야겠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 15대 학생회는 ‘가족’같은 면모로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16대 학생회의 당찬 포부와 그들이 안고 있는 부담감은 그들과 함께 할 앞으로의 2020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17 박지빈, 18 김휘윤, 19 손제빈 기자

## 따스한 연말을 함께 보낼 이달의 영화

겨울을 여는 첫 달이자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학우들에게 따스한 연말을 함께할 이달의 영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9년 12월 상반기 기준으로 1위는 ‘겨울왕국 2’, 2위는 ‘쥘만지: 벅스트 레벨’, 3위는 ‘포드 V 페라리’로 해외 영화가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4위에는 국내영화인 ‘감쪽같은 그녀’가 자리하고 있다. 그 중 우리는 전체 상영 영화 중 1위인 ‘겨울왕국 2’와 국내영화 중 1위인 ‘감쪽같은 그녀’를 소개하고자 한다.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이 영화를 추천한다.

두 번째로 ‘감쪽같은 그녀’라는 영화는 우리에게 드라마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친숙한 배우 ‘나문희’와 그의 손녀 역할로 ‘신과 함께 -죄와 벌’에서 ‘태산대왕’역을 연기한 ‘김수안’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이다. 2000년도 부산의 여름을 배경으로 하며 72살 나 홀로 삶을 즐기던 변말순(나문희)은 낮에는 손수건을 팔고 집에 돌아오면 내일 팔 손수건에 자수를 놓는 일상을 보내던 중 듣도 보도 못한 손녀(김수안)가 엄마의 유골함을 들고 나타난다. 특기는 자수, 용돈벌이는 그림 맞추기로 동네를 주름잡으며 나 혼자 잘 살고 있던 말순 할머니 앞에 다짜고짜 자신을 손녀라고 소개하는 열두 살 나공주(김수안)가 갓 난 동생 나진주를 업고 찾아오며 3명의 동거가 시작된다. 외모, 성격, 취향까지 모든 것이 극과 극인 말순과 공주는 티격태격 하루도 조용한 날 없이 지내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며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간다. 하지만 말순에게 위기가 찾아오면서 열두 살 어린 나이에 공주가 말순의 보호자가 되게 되는 이야기가 눈물샘을 자극한다. 이 영화는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사투리와 생활연기가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추천한다. 특히 나문희 배우의 극 중 의상 컨셉은 자신의 어머니가 그 시절 입으신 옷 스타일을 재현하여 입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 할머니가 저절로 생각나게 하여 추운 겨울이 따뜻한 마음으로 덮이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이다.

지금까지 두 가지의 영화를 소개하였다. 영화는 친구, 가족 혹은 연인들과 함께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매개체이다. 마음에 드는 영화로 1년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면 더욱더 기억에 남는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볼 영화를 고르지 않았다면 위의 영화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17 노하린, 18 강수빈, 19 문세인 기자